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얼마만큼 창출할까?”

사회적가치연구원은 다양한 조직의 사회 성과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직이 화폐 단위로 측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보완할 측정방법론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의 임팩트도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임팩트 프레임을 직접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비영리재단의 ‘임팩트 측정 프레임’이라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의미 있는 걸음을 뚝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혼자가 아닌
다섯 개의 재단이 함께해서 더 든든했습니다.

이 의미 있는 도전에 동참해주신 미래교실네트워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포스코청암재단,
T&C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교육·장학·연구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재단도 함께해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소셜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원장



02.

CSES 연구공모전·펠로우십_영향력의 폭과 깊이 & 무형자산가치

조직 및 사업 소개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SK그룹이 2018년에 설립한 비영리재단 법인으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연구하며 이를 함께할 사람들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것을 미션으로 한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 측정하면 더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사회문제 해결량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 영리기업, 공공기관, 비영리재단과 함께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측정 사례를 쌓아가고 있다. 나아가 이렇게 측정된 사회 성과가 시장 기제를 통해 거래된다면 사회 성과가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조직이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해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통해 측정과 인센티브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또한 크고 작은 경험적 검증과 현장에서의 노력을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계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는 특정 이론이나 전공이 아니다. 이 시대의 사람과 사회를 설명하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기에 기성 우수 학자의 전문성, 신진·예비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모두 발현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CSES 펠로우십, 연구공모전, Learning Community Series 등을 통해 지식과 사람을 연결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측정 대상 및 범위와 선정 이유

사회적가치연구원은 Learning Community 파일럿 측정 대상 사업으로 '연구공모전(콜로키움 통합)'과 '펠로우십' 사업을 선정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여러 연구·교육 지원 사업 중 상대적으로 운영 기간이 긴 사업이기도 하고, '사회적 가치 인재육성'이라는 조직의 목적을 대표하는 사업

이다. 특히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연구를 넘어 우리 사회에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제시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점에서 두 사업의 성과를 가능해보고자 했다.

CSES 연구공모전

CSES 연구공모전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연구의 완결성이나 형식보다는 창의성과 발전 가능성을 지닌 연구(자)를 발굴·지원한다. 연구 결과물의 내용적·형식적 제약도 없고, 단계별 제로 베이스 경쟁을 거치기에 누구나 언제든지 연구 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던 연구자들이 CSES 연구공모전을 통해 본인의 학문 영역과 사회적 가치를 연결해보거나 연구 영역을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CSES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공모전인 콜로키움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연구공모전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CSES 펠로우십

CSES 펠로우십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장학 지원 프로그램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선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학원생·학부생까지 참여 범위가 넓고, 장기적 멤버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학금 지원 외 1:1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연구공모전과 마찬가지로 결과물의 양식과 방법에 제약을 두지 않기 때문에 연구 결과물의 형태도 보고서, 잡지, 웹페이지, 영상, 논문 등 다양하다. 이들의 열정과 혁신적 사고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연구와 활동을 확대,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임팩트 접근을 위한 고민 과정

연구공모전과 펠로우십의 임팩트, '사람과 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연구공모전과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임팩트를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이에 앞서 프로그램의 전체 과정과 단계를 임팩트 경로 모형(Impact pathway)에 따라 정리해보았다. 첫째, 이 프로그램의 상금·운영비·인건비 등이 투입(input)이라면, 둘째, 실무진들이 이를 운영(operation)하고, 셋째, 몇 명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입었는지 그 양적 규모가 산출물(output)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참여자들이 연구공모전과 펠로우십에서 한 연구나 활동을 발전시켜 더욱 완성도 있는 논문이나 활동 결과물로 사회에 기여한다면 그것은 성과(outcome)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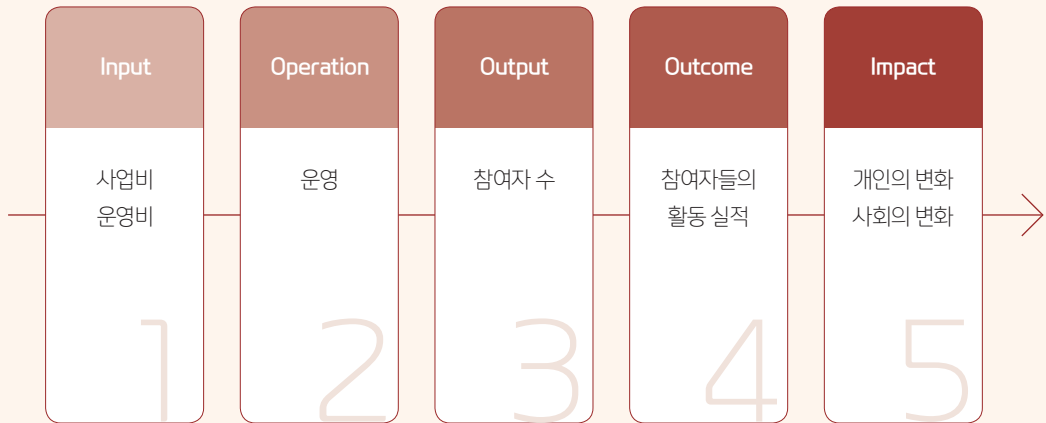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논문이나 보고서가 많이 나오면 우리는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행

보는 논문 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실무자들은 이 지점에서 임팩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그것이 우리 사업의 궁극적 목표가 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만약 우리 사업의 궁극적 목표가 논문·보고서 몇 편이라면, 우리는 참여자들에게 논문을 게재하거나 발표하라는 의무를 부여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3년간 어떠한 의무도 갖게 하지 않았다. 연구공모전과 펠로우십의 활동 내용을 어떤 방법과 형태로 발전시킬 것인지는 참여자들의 몫이고, 우리는 그런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업의 임팩트를 무엇이라고 볼 것인가? 이 물음에 관해 전·현직 실무자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잘 알거나 경험한 분들과 토론 시간을 가졌다. 토론 끝에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 싶은 미션과 비전은 곧 ‘사람의 변화, 사회의 변화’임을 다시 한번 자각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 프로그램의 ‘임팩트’라고 정의 내렸다. ‘이 프로그램을 경험한 참여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 변화가 참여자 당사자에게 머무는가, 아니면 참여자 주변으로 확산되는가?’에 대한 답이 되고자 했다.

예를 들어, 연구공모전이나 펠로우십에 참여한 연구자가 논문을 몇 편 발표했는지뿐 아니라 동료들과 관련 이슈를 연구하고 활동하는 자리(동아리, 학술 모임, 학회 발표, 지역사회 그룹형 활동 등)를 추가적으로만 들어내고 있는지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었다. 달리 표현하면, 개인에서 사회로 그 영역이 확장하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더라도, 미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 그림 1 | 사회적가치연구원 연구공모전, 펠로우십 사업의 임팩트 경로 모형



임팩트 프레임과 측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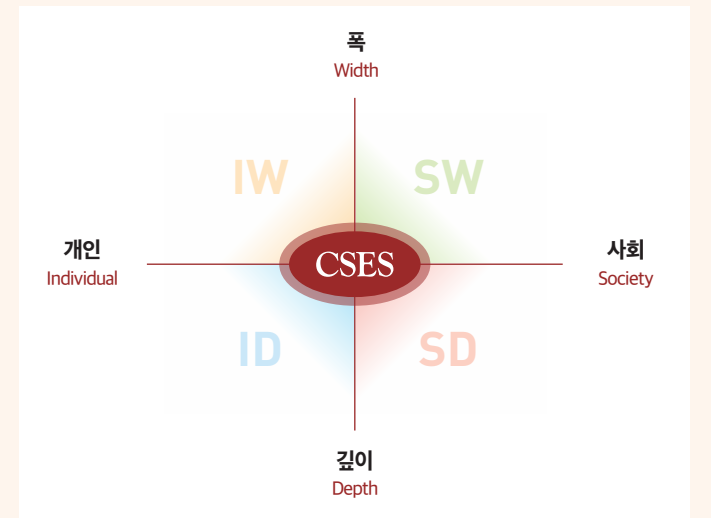
나와 나를 둘러싼 사회를 함께 변화시킨다, ‘Width and Depth of Impact’

두 가지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 싶은 임팩트를 ‘사람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임팩트 프레임고민하게 되었다.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임팩트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첫째, 우리 사업이 얼마나 많은 분야의 참여자들을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는가(width of Impact), 둘째, 우리 사업이 참여자의 연구나 활동에 얼마나 깊이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가(depth of Impact)다.

그 결과 우리가 도출한 임팩트 프레임은 일명 ‘영향력의 폭과 깊이 (Width and Depth of Impact)’다.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인지적·물리적 공간, 범위, 단위를 개인과 사회로 구분했다. 개인 차원에서는 참여한 연구자·활동가에게 미친 임팩트의 폭과 깊이, 사회 차원에서는 영향을 받은 연구자·활동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의 변화를 폭과 깊이로 구분해보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프레임으로 정리할 수 있다.

| 표 1 |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임팩트 프레임: 영향력의 폭과 깊이 (Width and Depth of Impact, WDI)

	개인(Individual)	사회(Society)
폭(Width)	IW영역	SW영역
깊이(Depth)	ID영역	SD영역



우리는 이 임팩트 프레임의 각 영역을 참여자 설문조사 및 활동 현황으로 측정해보기로 했다.

IW영역(개인에게 미친 임팩트의 폭)

- ① 사업 참여 전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있는가? 어떤 활동이었는가?
② 사업 참여 후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있는가? 어떤 활동이었는가?

→ 질문의 취지

'사업 참여 전후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활동 유무'와 '활동 종류의 다양성'을 파악한다.

- ③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 질문의 취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참여자들에게 나타난 '인식의 변화'를 파악한다.

- ④ 다른 연구자·활동가를 연결시킬 계획이 있는가?(변화의 확장 가능성)

→ 질문의 취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자신의 변화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산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변화의 확장 가능성'을 파악한다.

ID영역(개인에게 미친 임팩트의 깊이)

- ⑤ 본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이 본인에게 중요하고 대표적 활동의 목적 또는 영역이 되었는가?

→ 질문의 취지

만약 참여자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대표적 활동 목적·영역이 되었다면, 그것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혹은 더 발전된 연구·활동으로 내재화·정체성화(Social Value Identity)되었다고 볼 수 있다.

SW영역(사회에 미친 임팩트의 폭)

- ⑥ 주요 학회·학술지의 SV 세션 논문 중 CSES와 관련이 있는 세션 혹은 논문 수

→ 질문의 취지

개인의 결과물을 왜 사회의 임팩트로 보는지, 의문이 들 수 있겠다. 우리는 어떤 결과물이 창출될 때, 이를 접하는 사람들이 2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과정을 '사회에 지식을 전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미 해당 결과물을 창출한 개인은 변화를 겪었고, 이것이 공식 출간물로 나오거나 혹은 학회에 세션이 만들어져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영역·카테고리가 생긴다면 이는 기존에 없던 영역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했다.

SD영역(사회에 미친 임팩트의 깊이)

참여자들의 사회적 가치 분야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는 시점에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관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파일럿 측정에서는 제외

이와 같이 영역별 측정 지표를 설정한 후 설문 문항으로 전환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조사 기간: 2021년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

· 조사 대상: 연구공모전(콜로키움 포함) 참여자 213명(이 중 63명 응답, 응답률 약 30%)
펠로우십 참여자 33명(이 중 20명 응답, 응답률 약 60%)

신생 조직이 마주한 고민, '측정할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영향력의 폭과 깊이(WDI)'라는 임팩트 프레임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의한 임팩트의 측정이 가능한가의 문제점을 마주했다. 설립한 지 만 3년 된 신생 조직의 프로그램에서 사람(개인)의 변화, 근거리 사회의 변화, 더 나아가 사회에 사회적 가치 관련 카테고리 생기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가시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즉, 우리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지에 대한 물음이다.

이러한 물음에 우리는 보유한 데이터에 맞춰 프레임을 설정하기보다 사업 목표를 우선순위로 현재 측정할 수 있는 만큼 측정해보고, 추후 점차 보완하는 방향을 택했다. 우선적으로 실무자·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반영한 임팩트 프레임을 설정하면 이를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모으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고민하면서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어떤 영역은 지금 당장 측정하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임팩트 측정 결과

연구공모전·콜로키움의 임팩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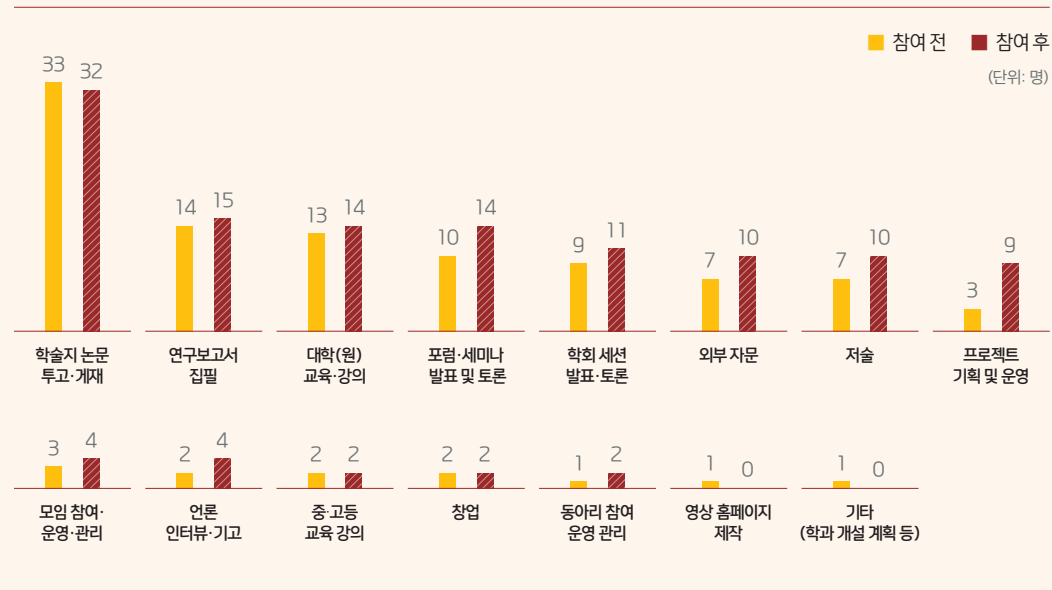
1) 개인 변화의 폭에 미친 임팩트(IW영역)

본 사업에 참여하기 전후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활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공모전·콜로키움 활동 후 사회적 가치 관련 활동을 새롭게 한 사람은 63명 중 9명, 참여 전후 모두 활동을 한 사람은 38명으로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의 정량적 성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우리가 조사한 시기가 프로그램 활동이 종료된 지 얼마되지 않아 관련 활동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응답자 수가 63명에 그쳐, 도수나 비율보다는 참여자들의 활동이 얼마나 다양해졌는지에 집중하기로 했다.

사회적 가치 활동 경험 여부	연구공모전·콜로키움 참여 후(後)	
	활동 경험 없음	활동 경험 있음
연구공모전·콜로키움 참여 전(前)	활동 경험 없음	5
	활동 경험 있음	9
		11
		38

우리가 주목한 점은 흔히 공모전이나 데이터 콜로키움에서 기대하는 산출물인 논문, 학술대회 발표뿐 아니라 참여자 활동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술지 논문 투고·게재뿐 아니라 연구보고서, 포럼·세미나, 학회 발표 토론회, 외부 자문, 언론 기고, 교육·강의[대학(원)], 중·고등교육까지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공모전이 내용과 형식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 우리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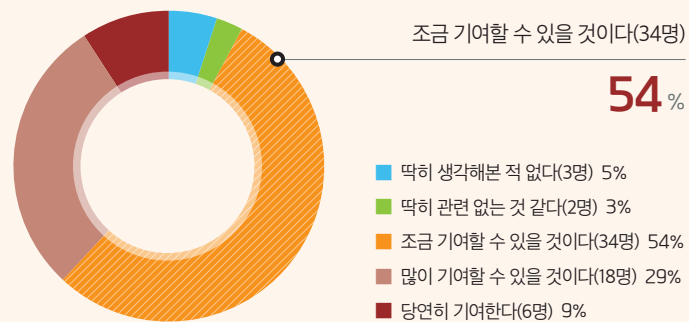
에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지식 활동이 반드시 논문이나 도서로만 창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로는 토론·모임·기고 등의 활동이 확산에 더 도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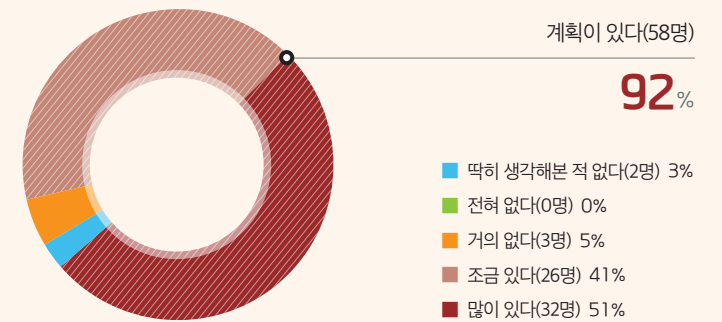
※ 응답자가 여러 종류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다중 선택하도록 했음

다음은 본 사업에 참여하면서 참여자의 연구·활동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 참여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보고자 한 것인데 '조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54%),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29%), '당연히 기여한다'(9%)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연구·활동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다수로 나타나 본 사업의 참여 경험이 긍정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귀하께서는 귀하의 활동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활동에 타 연구자, 활동가와 협력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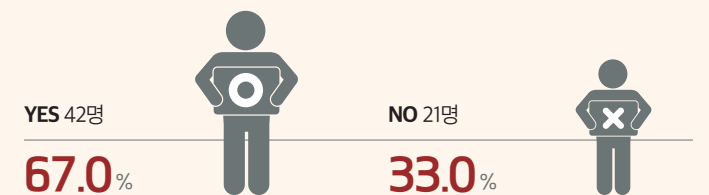


여기에 참여자 스스로 인식이 변화한 것뿐 아니라 한 단계 더 확장해 '다른 연구자·활동가와 협력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응답자의 9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부가적 질문으로 본 사업을 경험한 당사자가 이것을 타인에게 소개한 경험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소개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특히 소개한다면 그 방법, 사용하는 단어가 곧 당사자가 느낀 변화 내용,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에 대한 대리지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사였다.

공모전 참여자의 67%가 타인에게 이를 소개했다고 했는데, 이때 표현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할 수 있다'와 같이 연구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 '상금도 크고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도 있다, 경력이 된다'와 같은 인센티브적 측면이 주로 나타났다. 아직 타인에게 소개하지 않았지만 소개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새로운 연구,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방향에 대한 고민'과 같은 내용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사회적 가치 연구·활동을 타자에게 확산시키고 긍정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기부여 기제가 첫째 자율성, 둘째 인센티브, 셋째 사회적 가치라는 새로운 연구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임을 확인시킨다.

귀하는 연구공모전·콜로키움을 타인에게 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소개한 적이 없다면, 앞으로 소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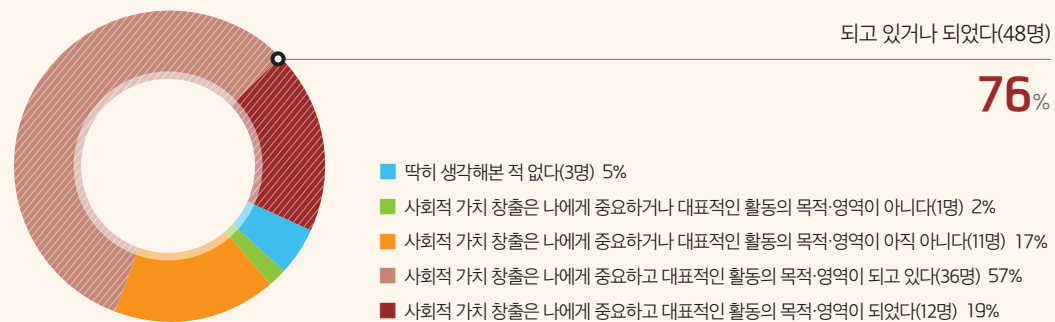
2) 연구공모전·콜로키움이 개인 변화의 깊이에 미친 임팩트(ID영역)

본 사업을 통해 개인의 변화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측정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자신에게 중요하고 대표적인 활동의 목적 또는 영역이 되었는가'를 물었고, 그 결과 76%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연구·활동이 '대표적인' 무엇이 되었다는 것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고 더 발전시키려는 것으로 지속성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전문성이 증가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가치 혹은 사회적 가치와 전혀 관련 없는 마케팅, 회계, 인적자원 관리 연구를 하던 연구자가 이를 계기로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연구로 연구 영역을 확장하게 되고 그 횟수와 기간이 늘어난다면 개인의 연구 아이덴티티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록 공모전에 참여한 이유는 공모전의 운영 방식, 연구자의 자율성 존중, 인센티브, 새로운 영역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했을지라도 반복된 활동, 더 발전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새로운 연구자를 발굴해낸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다.

[연구공모전·콜로키움 참여 후]

사회적 가치 창출은 귀하에게 중요하고 대표적인 활동의 목적이나 영역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연구공모전·콜로키움이 사회 변화의 폭에 미친 임팩트(SW영역)

기존에 없던 연구 분야가 생긴다는 것은 사람들이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언어, 논의의 장, 담론의 결과가 하나의 지식 체계, 경험적 산물로 쌓여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 착안해 우리는 연구공모전·콜로키움을 통한 활동의 결과를 통해 우리의 사업이 어떤 활동을 산출했고, 얼마만큼 폭을 넓히고 영역화했는지 등 학계와 사회 변화에 미친 임팩트 폭을 측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표로 '주요 학회·학술지의 사회적 가치 관련 세션 혹은 논문 중 연구원에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세션 혹은 논문의 수'를 측정해보기로 했다.

이들의 실적은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나 학회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결과물에서 창출된 지식은 다수의 사람들을 거쳐 연구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고, 모임을 생성해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더 많은 담론을 형성할 수도 있다. 즉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연구를 위한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실적을 개인이 아닌 '사회에 미친 임팩트의 폭'으로 보기로 하였다.

먼저, 학술대회 세션 중 사회적가치연구원의 본 사업이 직접적으로 기여한 횟수는 많지 않았다. 2019년 총 4회에 걸쳐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2019년·2020년·2021년 사회적기업학회, 2019년 한국회계학회, 2020년 한국 회계정보학회에서 사회적 가치 세션을 개설했다.

둘째, 201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연구공모전, 데이터 콜로키움을 포함해 이를 계기로 창출된 학계 성과물은 총 30건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2019년 연구공모전 대상 수상작은 최근 경영학 글로벌 최상급 학술지 'Management Science'에 게재 확정을 받기도 했다.

	학위논문		학술 논문	도서
	박사	석사		
2018년	-	-	3	-
2019년	1	1	5	-
2020년	1	3	7	1
2021년	2	1	5	-
합계	4	5	20	1

마지막으로, SD영역(사회에 미친 임팩트의 깊이)은 앞서 제시한 대로 추후 측정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연구공모전·콜로키움의 WDI 측정 결과 요약

지금까지 연구공모전·콜로키움의 임팩트에 대해 임팩트 프레임 WDI로 구분해 측정해보았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W영역(개인 변화의 폭)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변화는 두드러지지 않는데 그 원인은 사업 지속 연수 자체가 3년으로 짧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 공모전·콜로키움에 비해 연구·활동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질적 성과다. 또한 단순한 활동의 증감을 넘어 인식의 변화를 살펴볼 때, 자신의 연구·활동이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참여자가 92%, 근거리 동료들과 협력 혹은 확산시킬 의향이 있는 참여자가 91%로 나타났다.

둘째, ID영역(개인 변화의 깊이)의 경우, 응답자의 76%가 사회적 가치 연구·활동이 자신의 대표적 연구·활동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추후 사회의 폭과 깊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셋째, SW영역(사회 변화의 폭)의 경우, 지난 3년 6개월간 학술대회 세션화 6회, 학술 학위 논문·도서 30건이 출간되었다. 이것이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학계, 담론 형성의 장(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지표를 가지고 매년 증감을 추적하면서 관리지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SD영역(사회 변화의 깊이)은 좀 더 측정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다.

펠로우십의 임팩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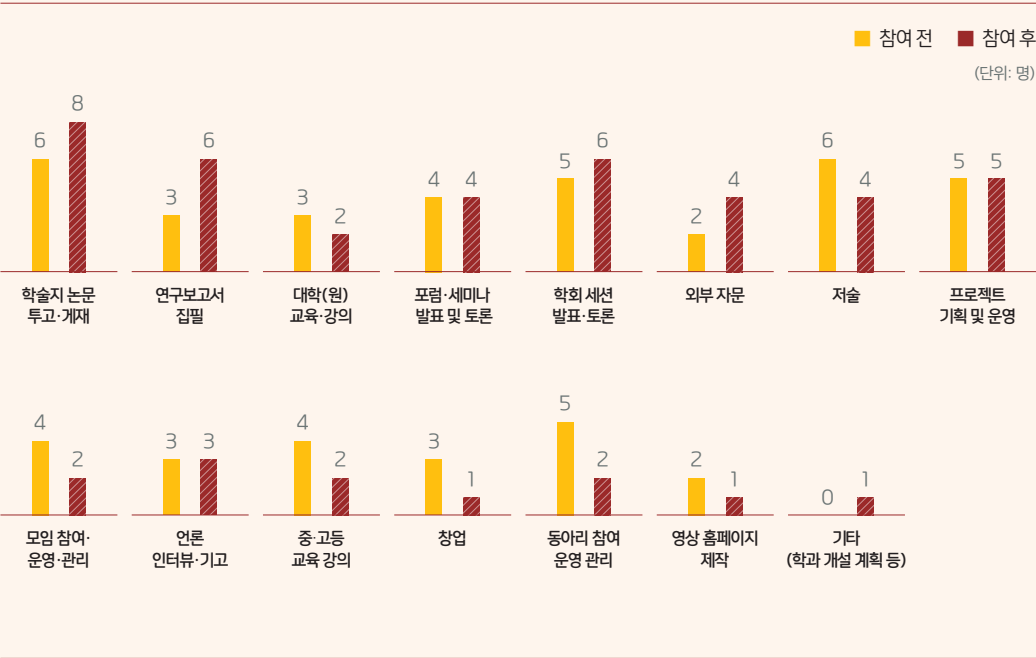
1) 펠로우십이 개인 변화의 폭에 미친 임팩트(IW영역)

연구공모전·콜로키움과 마찬가지로 펠로우십도 프로그램 이전에 하지 않던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활동이 증가했는지 살펴보았다. 펠로우십 참여자 중 응답한 20명을 살펴보면, 참여 전후 모두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명, 참여 전후 모두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4명이었다. 연구공모전과 마찬가지로 참여 전에는 관련 활동을 했으나 참여 후에는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도 4명 있었는데, 이는 아직 펠로우십의

사회적 가치 활동 경험 여부		펠로우십 참여 후(後)	
		활동 경험 없음	활동 경험 있음
펠로우십 참여 전(前)	활동 경험 없음	2	0
	활동 경험 있음	4	14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아 펠로우십 활동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펠로우십의 경우도 응답자가 20명에 그치므로, 도수나 비율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의 활동 다양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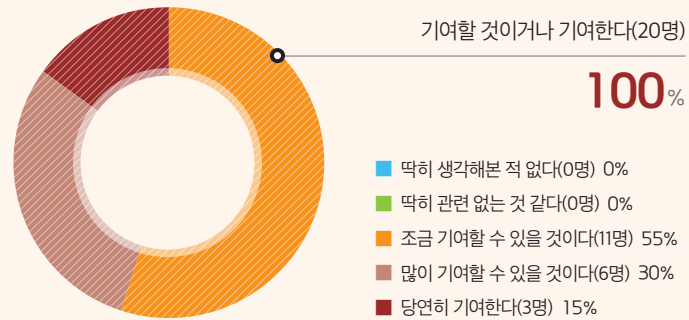


※ 응답자가 여러 종류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다중 선택하도록 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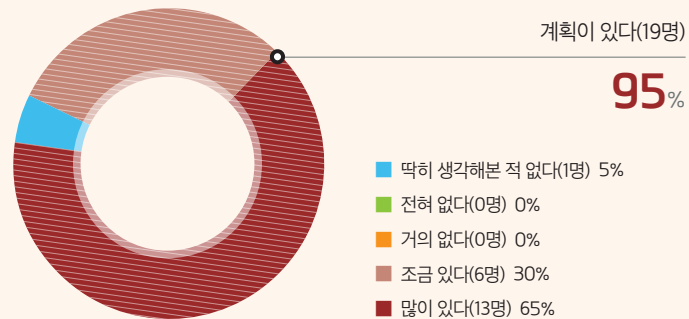
조사 결과, 펠로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 관련 활동의 종류가 연구 공모전에 비해 더욱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었다. 펠로우십 대상자가 학부생·대학원생 때문이기도 한데,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산출물이 다양할수록 다양한 루트와 방법으로 확산될 수 있기에 바람직한 현상이다. 학생들이라도 저술, 자문, 교육·강의, 창업 등을 시도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계나 사회적 가치 생태계에서 기성학자, 신진학자, 주니어 그룹으로 활동의 영역을 구분하기보다 미래 인재들이 생각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다음은 펠로우십에 참여하면서 참여자들의 연구·활동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동료들과 협업하거나 동료들에게 확산할 계획이 있는지도 물었다. 인식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본 것인데 응답자의 100%가 인식의 변화, 95%가 협업을 통해 더 발전시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께서는 귀하의 활동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활동에 타 연구자, 활동가와 협력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펠로우십을 타인에게 소개한 경우 사회적 가치 관련 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장점으로 꼽은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연구공모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관점으로 사회적 가치 연구·활동을 하는 사람들 간 교류와 자율성이 이들을 참여하게 하는 기제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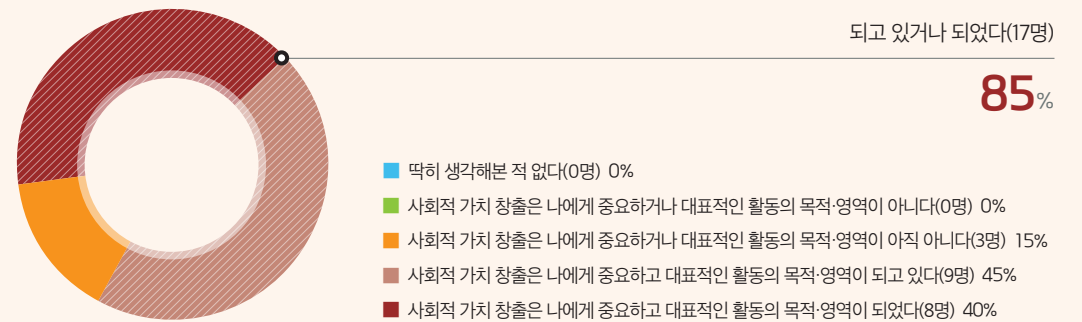
연구공모전의 경우 자율성, 인센티브, 새로운 연구 카테고리가 개인의 폭이 넓어지게 하는 핵심 요소였는데 펠로우십은 네트워크와 자율성으로 요약된다. 사업 실무자에게는 이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콘셉트가 '플랫폼' 제공인데, 수혜자들도 이 점을 높이 산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 지점이다. 사업 실무자가 의도한 임팩트를 수혜자도 동시에 느끼는 것, 이것이 측정의 희열이 아닐까 싶다.

2) 펠로우십이 개인 변화의 깊이에 미친 임팩트(ID영역)

펠로우십을 통해 개인의 변화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응답

자의 85%가 펠로우십을 통해 한 활동이 최근의 대표적 활동, 영역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물론 펠로우십이 1년 내내 진행되고, 연구장학금 성격으로 지급된다는 면에서 다소 편향적 대답이 나올 수 있기에 향후 보다 솔직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설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펠로우십 참여 후] 사회적 가치 창출은 귀하에게 중요하고 대표적인 활동의 목적이나 영역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 펠로우십이 사회 변화의 폭에 미친 임팩트(SW영역)

펠로우십이 사회 변화의 폭에 미친 임팩트의 측정은 연구공모전과 마찬가지로 '주요 학회·학술지의 사회적 가치 관련 세션 개설 혹은 논문 중에 연구원에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세션 혹은 논문의 수'로 집계해보기로 했다.

펠로우십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열린 학회 세션은 2021 한국청소년 학술대회 1건으로 확산을 위한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또한 결과물로는 학술 논문 3건 게재, 투고 준비 중 8건, 학위 논문 2건, 학회 발표 5건, 보고서 1건, 웹페이지 1건 등의 결과물이 나왔다. 미국 유명 대학의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펠로도 있고, 사회적 기업을 위한 브랜딩 컨설팅 회사를 창업한 펠로도 있으며, 교수로 임용된 펠로도 있다. 그뿐 아니라 학교 간, 동아리 간 협업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SD영역(사회에 미친 임팩트의 깊이)은 앞서 제시한 대로 추후 측정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펠로우십의 WDI 측정 결과 요약

지금까지 펠로우십의 임팩트에 대해 임팩트 프레임 WDI로 구분해 측정해보았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팩트 측정이 가져온 임팩트

첫째, IW영역(개인 변화의 폭)의 경우, 연구공모전처럼 프로그램 참여
전후 활동량의 증가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인식의 변화, 주변 활동
가들과의 협력 및 확산 의향이 매우 높았다. 또한 펠로우십 참여자들을 변
화시키는 요소가 인센티브보다는 네트워크, 자율성이라는 점을 알 수 있
었다.

둘째, ID영역(개인 변화의 깊이)의 경우, 응답자의 85%가 사회적 가
치 연구·활동이 자신의 대표적인 연구·활동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아직은
그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15%에 좀 더 집중해 그들의 변화에 도움을 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SW영역(사회 변화의 폭)의 경우 아직은 관찰치가 많이 발견되
지 않는다.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원하는 인재 육성 사업에서 가시적 산
출물이 적다고 이들의 성과, 프로그램의 성과가 적다고 보는 것은 적합하
지 않다. 장학, 교육 지원 사업의 기대 효과 대부분을 장기적으로 바라봐
야 하는 이유다.

사회의 인내 자본으로 이들의 성장과 잠재력 발현을 기다리고 응원해야

“세상을 바라보는 제 눈과
생각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연구·교육 지원 사업 참여자가 프로그램을 마치
며 한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이번 Learning Community 파일럿 측정에
서 지표를 개발하는 동안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말에서 느껴지는 참여
자의 변화를 도대체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도출한 ‘영향력의 폭과 깊이’ 프레임은 개
인과 사회의 변화 그리고 변화 가능성을 모두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
우 의미 있는 결과였다.

그뿐 아니라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연구·교육 지원 사업의 목표를 재정
립하고 우리가 목표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해당 사업
의 지속적 운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번 측정을 통해 우
리가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지, 동시에 측정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지 깨달음을 주기도 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마중물이 되었다. Learning Community 파일럿 측정을 통해 얻은 교
훈을 각 사업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공모전·콜로키움 측정 교훈

첫째, 하나의 지표와 숫자로 우리 사업의 임팩트를 모두 드러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표, 숫자마다 의미가 다르다. 보려고 하는 임팩트의 의
미도 다르다. 앞으로 측정을 좀 더 반복하고 데이터를 쌓으면서 이러한 결
과값을 조합해 더욱 대표성 있는 임팩트 인덱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동안 ‘연구공모전·콜로키움, 펠로우십에 몇 명이 참여했는가’
가 주요 관심사였고, 그것이 주요한 집계 대상, 산출과 성과였다. 그러나
이런 측정을 하고 보니 그것은 우리가 정말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의
과정일 뿐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 이에 따라 우리 사업을 돌아보는 계기
가 되었다.

셋째, 연구 결과물, 지식, 활동 같은 성과는 개인과 사회에만 환원해야
할까? 우리 조직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매년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투
입하고 운영하는데 우리 조직에 남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 가치는 우리
조직 경계 내에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에도 환원되는 가치인가? 이
런 고민 끝에 우리는 또 다른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바로 자산가치 측정
이다. 프로그램을 경험한 연구자·활동가 등 참여자의 가치, 예측 가능한
연구 활동,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잠재력,
연구자·활동가 맞춤형 마중물 제도로써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하우
와 쌓인 네트워크 등이 우리의 무형자산가치라는 생각이 들어 발칙한 시
도를 해보기로 한 것이다.

펠로우십 측정 교훈

첫째, 임팩트 프레임으로 설정한 WDI가 펠로우십의 임팩트를 측정하
는 데 적합한지 고민하게 되었다. 임팩트 프레임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
가 아니다. 개인과 사회 변화의 폭과 깊이로 나누어 장·단기적으로 범위를
구분하고 관찰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특히 기간 인재 양성 사업이
장학금이라는 투입(input) 위주로 평가되었는데 이러한 프레임의 적용은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고민되는 부분은 만 3년, 헛수
로 4년 차에 접어든 인재 육성 사업으로 만난 인재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느냐는 것이다. 조직의 인내 자본으로, 사회
의 인내 자본으로 이들의 성장과 잠재력 발현을 기다리고 응원하되, 데이
터는 분명히 쌓아야 할 것이다.

둘째, 펠로들의 응답 중 눈에 띄는 점은 다른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할 때 ‘네트워크’를 추천 요소로 꼽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WDI에서 이
들 간 네트워크가 단단해질수록 생기는 가치는 측정하지 못했다. 이번 측
정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점이다. 자신의 동료와 연구 협업을 하겠다는 것

과, 펠로우십 내 다른 펠로들과 협력하고 싶다,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신도 더 발전하고 싶다는 것은 다른 접근법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두 가지 측면을 볼 때 우리는 또 다른 측정 시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서 연구공모전에서는 우리 조직에 남게 되는, 사회에 환원되는 자원의 개념으로서 '자산가치' 측정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번 에 펠로우십을 설문지 방식으로 측정하고 나니, 그 어떤 사업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는 인재 육성 사업이야말로 자산으로 접근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비영리재단에서 시행되는 장학 사업도 비슷한 고민을 할 것이다. 몇십 년 전 장학 수혜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들에게 미친 영향력은 몇 %나 될 것인가, 사회에 얼마나 환원한 것인가 등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고 싶었다. 심지어 지금 당장 펠로들이 우리 펠로우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펼치는데 이것을 계기로 몇 개월 후, 수년 후 어떻게 발전시킬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잠재력과 미래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임팩트가 있고, 우리 사업의 경계를 넘어서는 자산을 낳는 것인지 가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도전, 무형자산의 화폐적 측정

사회적 가치를 '연구·활동'하는 '사람'의 가치, '무형자산'이라고 보자

1) 자산가치 측정을 위한 고민 과정

앞서 연구공모전·콜로키움과 펠로우십의 임팩트를 '영향력의 폭과 넓이' 프레임으로 측정하면서, 우리는 두 사업의 자산가치 가능성을 느꼈다. 특히 우리는 다양한 조직의 사회 성과를 화폐적으로 측정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연구공모전·콜로키움, 펠로우십'의 가치를 화폐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있다면 얼마나 될지 궁금했다.

연구공모전·콜로키움, 펠로우십 같은 연구·교육 지원 사업의 자산가치 추정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거의 처음으로 시도하는 접근이기에 한계점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연구공모전·콜로키움과 펠로우십의 가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보고, 이들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략적으로 관리해보고자 다소 서툴지만 조심스럽게 의미 있는 첫걸음을 떼보기로 했다.

자산가치를 추정하기 앞서, 우리는 과연 연구공모전·콜로키움, 펠로우십의 가치를 자산가치로 인정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만약 자산가치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 자산은 무형자산에 해당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다양한 무형자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부 대기업 지주회사의 경우 기업 브랜드의 자산가치를 인정해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이용 수

수료를 받기도 한다. 영업권, 지적재산권도 우리가 인정하는 대표적 무형자산이다.

그런데 기존의 무형자산과 우리가 추정하려는 연구공모전·콜로키움, 펠로우십의 자산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첫째는 미래에 기대되는 현금 흐름, 즉 기대수익이 없다는 점이고, 둘째는 (현금 흐름과 무관하게) 해당 자산의 임팩트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귀속된다는 점이다.

과연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자산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까? 그 적절한 반례가 공공도서관이다. 공공도서관에는 많은 장서가 소장되어 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이러한 장서, 교육 프로그램이 공공도서관에 수익을 창출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준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장서와 교육 프로그램을 일종의 자산으로 보고 그 편익을 추정하는 다양한 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이용자 한 명이 한 달 동안 얻는 사회적 편익은 9700원이다. 이러한 편익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ROI(Return on Investment)를 추정한 결과 공공도서관은 366%의 투자 수익률을 보였다.¹⁾

따라서 우리는 연구공모전·콜로키움, 펠로우십의 자산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자산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공공도서관이 장서와 교육 프로그램을 일종의 자산으로 갖고 있듯이, 우리 사업을 통해 연구 성과물 즉 연구 논문과 연구자가 생산 혹은 양성된다. 연구 논문은 '연구·장학 사업'의 대표적 결과물이다.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할 경우 결과적으로 생산품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기업이 만든 생산품은 판매되기 전까지 재고 자산으로 인식되고, 재고 자산의 가치는 취득원가 기준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면 영화는 제작이 완료되면 '판권'이란 명칭의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해당 자산의 가치는 영화 제작에 투입한 제작비로 평가된다. 따라서 우리는 연구공모전·콜로키움, 펠로우십 사업으로 만들어진 연구 논문도 다른 무형자산처럼 취득 비용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연구자는 자산일까?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연예기획사의 회계처리에서 찾았다. 연예기획사에서 연습생은 미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다. 연예기획사는 이들에게 지급한 전속 계약금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해 재무상태표에 명시한다. 연예인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무형자산으로 인식된다. 즉 사람의 가치도 이미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양성한 연구자들이 미래에 사회적 가치 분야에서 수준 높은 연구물을 창출하고, 나아가 직접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다면 연구자 역시 우리 사업의 핵심 자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공공도서관 경제적 가치, 2011.

2) 자산가치 측정 방법과 결과

가) 취득원가 기반의 자산가치 측정 방법

이제 연구 논문·연구자를 자산으로 인정한다면, 남은 이슈는 어떤 방법으로 자산가치를 추정할 것인가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공모전·콜로키움, 펠로우십 사업의 자산가치를 추정해보았다. 첫째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들인 비용을 추정하는 ‘취득원가 산출’ 방법이고, 둘째는 전문가에게 해당 사업의 자산가치가 얼마일지 물어 평가하는 ‘델파이 조사’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산가치를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 의도한 사회적 임팩트는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사회적 임팩트를 평가값에 반영할 수 있지만, 그 값이 주관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이 타당한지 알 수 없기에 가장 보수적인 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이 보고서에 제시하려 한다. 연구·장학 사업의 자산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시도이고, 지금껏 어떠한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나) 취득원가 기반의 자산가치 측정 결과

연구공모전·콜로키움, 펠로우십 사업의 자산가치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 중 우리가 가장 먼저 적용한 것은 연구 논문의 취득 비용(취득원가)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문헌을 찾던 중 2011년 한국의대 검임교수인 송경모 박사(서울대 경제학)가 쓴 <학술 논문 한 편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라는 에세이를 발견했다. 이 글에서 저자는 한 편의 논문은 1) 참고 문헌을 찾아 읽고 정리하는 시간 2) 집필하는 시간 3) 동료 연구자들이 검토하고 편집하는 시간을 더해 완성된다고 주장했다.²⁾ 그 시간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호턴(Houghton) 외(2009)는 1) 연구자가 참고 문헌 한 편을 찾아 읽고 정리하는 데 평균 2시간 40분 소요되고 2) 한 편을 집필하는 데에는 95시간 소요된다고 추정했다.³⁾ 헤들룬드(Hedlund, 2004)는 3) 논문 한 편을 동료 연구자들이 검토하는 데 6시간, 편집위원회가 편집하는 데 10시간 소요된다고 추정했다.⁴⁾

지난 3년간 연구공모전·콜로키움, 펠로우십 사업을 통해 총 35편의 연구물이 나왔다. 이 연구물은 박사 학위 논문, 석사 학위 논문, 도서, 해외 학술지 게재 논문,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 등 형태와 수준이 다양하다. 경험적으로 볼 때, 박사 학위 논문에 투입되는 시간은 석사 학위 논문에 투입되는 시간보다 많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데 투입되는 시간이 국내 학술지에 투입되는 시간보다 많다.

도서 한 권을 집필하는 데 드는 시간이 논문 한 편을 집필하는 데 드는 시간보다 많은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는 연구물 35편의 다양한 형태와 수준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연구 논문으로 보았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취득 비용을 추정해보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지난 3년간 35편의 연구 논문을 취득하는 데 든 비용은 얼마일까?

취득원가는 1억5575만 원으로, 우리가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한 이 사업의 자산가치다. 추정 과정을 따라가보면, 선행 연구를 참고했을 때 1) 연구 논문 한 편을 쓰기 위해 찾아 읽고 정리하는 참고 문헌을 평균 25편으로 가정할 때, 이 과정에 투입되는 시간은 67시간이다. 2) 집필하는 데 95시간 소요된다. 3) 동료 연구자들의 검토와 편집 시간이 16시간 추가되어, 연구 논문 한 편이 만들어지는 데 총 178시간 소요된다. 여기에 연구자의 시급 2만5000원을 곱하면 연구 논문 한 편의 취득 비용은 445만 원이다.⁵⁾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 발표한 연구 논문 수 35편을 곱하면 위의 취득 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1억5575만 원의 취득원가에는 연구자라는 사람의 가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모든 연구자의 수준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단순히 투입된 시간만으로 취득원가를 추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자의 가치까지 포함할 경우 취득원가는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는 연구자의 가치를 포함하면서 보수적으로 자산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지표로 연구공모전·콜로키움, 펠로우십의 상금과 장학금을 택했다. 그 이유는 상금과 장학금 수혜자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연구공모전 수상자를 선정할 때는 다른 평가 요소와 함께 ‘연구자가 얼마나 성실하고 완성도 있게 연구물을 작성했는지’ 평가한다. 콜로키움 수상자를 선정할 때는 ‘발표자가 얼마나 발표를 잘했는지’ 현장 청중의 평가를 반영한다. 펠로우십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할 때는 각 팀이 제안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해당 팀원의 면면과 구성이 충분한지 평가한다.

상금과 장학금으로 추정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4억7600만 원이다. 1억5575만 원의 연구 논문 자산가치 대비 3억4250만 원의 연구자 육성 원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산의 취득원가 중 대략적으로 30%는 ‘연구물’에 관한 원가고, 약 70%는 ‘사람’에 대한 원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취득원가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해당 연구물과 연구자들이 앞으로 사회에 미칠 긍정적 임팩트가 제대로 추정되지 못했다는 아쉬움 때문이다.

다) 전문가 평가 기반의 자산가치 측정 방법, 델파이 조사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들에게 ‘사회적 임팩트’를 포함한 연구공모전·

2)

www.itfind.or.kr/UWZIN/file9608 (구글에서 ‘학술 논문 한 편의 가격’이란 키워드로 2021년 7월에 검색)

3)

Houghton, J. W., Rassmussen, B., Sheehan, P. J., Oppenheim, C., Morris, A., Creaser, C., Greenwood, H., Summers M., and A Gourlay, Economics Implications of Alternative Scholarly Publishing Models: Exploring the Costs and Benefits, A report to the 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JISC), 2009.

4)

Hedlund, T., Gustafsson, T., & Bjork, B.-C., “The Open Access Scientific Journal: An Empirical Study”, Learned Publishing, 17, 3, 2004.

5)

연구자의 시급은 ‘대학교 시간강사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연구자가 연구하지 않을 때 차선으로 할 수 있는 대체 활동이 시간제 강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9년 10월 28일자 <한국대학신문> ‘강사 모두 피해자, 정부/국회 대책 마련 시급’에서는 대학교 시간강사 시급을 5만 원으로 추정했다. 2018년 7월 16일자 <충청투데이>의 ‘대학 시간강사 시급 천차만별’ 기사에 따르면 충청지역 대학의 시간강사 시급을 조사한 결과 시간강사들이 4년제 대학 기준 평균 6만 원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현재 시간제 강의 제도의 현실상 연구 논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모두 시간 강의로 대체할 수는 없다. 1인당 허락된 강의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강사의 시급을 전국 평균의 반값인 2만5000원으로 가정했다.

콜로키움, 펠로우십 사업의 자산가치를 물어보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델파이 기법’이 사용되었다. <행정학사전>에 따르면, 델파이 기법은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되풀이해 교환하고 모아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며, 1948년 미국 랜드연구소에서 개발한 이래 군사·교육·연구 개발·정보처리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사업의 자산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델파이 기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첫째, ‘자산’의 본래 정의에 따르면 미래에 창출될 가치의 예측이 필요한데, 델파이 기법이 미래 예측 기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둘째, 영리 영역에서도 자산가치를 추정하는 여러 가지 관점과 방법이 존재해 어떤 관점과 방법이 정답이라는 합의는 없는데,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각기 다른 관점을 서로 공유하고 타협해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셋째, 지금껏 재단 연구·장학 사업의 자산가치를 추정한 선례가 없어 이를 추정하는 활동 그 자체에 대해 ‘낯것 상태(raw)’의 의견이 필요한데, 델파이 기법이 그에 맞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델파이 조사는 다음 순서로 진행되었다.

(1) 조사에 참여할 전문가 선정: 우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16명을 섭외했다. 이들은 변호사, 세무공무원, 임팩트투자사 대표, CSR 전문가, 회계·전략·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이다. 이 중 감정평가사 한 명은 해당 영역이 감정평가 영역이기는 하지만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응답하지 않았다. 총 2회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1·2차에 모두 응답한 전문가들은 13명이다.

(2) 1차 조사: 전문가들에게 연구공모전·콜로키움, 펠로우십 사업 내용과 성과를 기술한 자료를 전달하고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했다. 첫째는 ‘해당 사업의 자산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는 위와 같이 판단한 기준의 근거를 기술하도록 했다.

라) 전문가 평가 기반의 자산가치 측정 결과

델파이 조사는 약 일주일간 총 2회에 걸쳐 진행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차 조사 결과 정리: 1차 조사 결과 연구공모전·콜로키움의 자산가치는 최소 2억6000만 원에서 최대 480억 원까지로 응답 범위가 넓었다(중간값 7.07억 원, 평균값 12.13억 원, 표준편차 15.84). 이 중 실무자의 판단하에 표준편차 +3 밖에 있는 이상치(outlier) 3개를 제외했다(480억 원, 100억 원, 96.2억 원)

응답자들은 다양한 근거로 자산가치를 추정했다. 예를 들면, 60억 원으로 응답한 전문가는 매년 공모전 상금 2억 원을 10% 할인율로 현재 가치로 환산했고, 연구자 저변 확대의 승수 효과를 3배로 가정했다. 8.14억 원으로 응답한 전문가는 투자금액이 자산화되는 과정을 토대로 투자증가율 70%

와 감가상각률 1%로 자산가치를 계산했다. 5.33억 원으로 응답한 전문가는 공모전에 접수된 346편 논문당 준비 가치를 50만 원으로 책정했다.

같은 방식으로 펠로우십의 자산가치에 대한 응답치는 중간값 3.42억 원, 평균 10.31억 원, 표준편차 75.59였고, 이상치에 해당되는 2개의 응답치는 제외했다(300억 원, 52.1억 원).

(2) 2차 조사: 전문가들에게 다른 전문가들이 응답한 응답치와 그 근거를 모두 공유하고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했다. 다른 전문가들의 응답값과 응답치를 모두 공유한 이유는 델파이 기법이 서로 다른 의견을 공유하고 타협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3) 2차 조사 결과 정리: 통상적으로 델파이 조사는 3회 이상 공유 과정을 거치지만, 우리는 시간 관계상 2차 조사까지 진행했다. 2차 조사 결과 1차 조사 대비 자산가치의 중간값과 평균값이 모두 상승했다(중간값 10억 원, 평균 23.83억 원). 하지만 표준편차는 줄어들어 전문가들의 응답치가 수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준편차 1차 15.84 → 2차 6.83, 평균과 표준편차는 이상치를 제외하고 계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은 그들이 기술한 근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연구공모전·콜로키움의 경우 1차에서 60억 원으로 응답한 전문가는 자산가치를 40억 원으로 수정했는데, 1차 응답 시 근거로 세운 승수 효과를 3배에서 2배로 수정했다. 1차에서 8.14억 원으로 응답한 전문가는 자산가치를 7.23억 원으로 수정했고, 1차에서 근거로 제시한 감가상각률 1%를 10%로 수정했다. 1차에서 5.33억 원으로 응답한 전문가는 6.2억 원으로 자산가치를 수정했는데, 기존 근거 외 우수 논문 연구 보고서 3편의 가치를 편당 3000만 원의 시장가치로 추가했다.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 펠로우십의 자산가치도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공모전·콜로키움, 펠로우십의 자산가치를 어떻게 추정했는지 설명했다. 그 결과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 연구공모전·콜로키움, 펠로우십의 자산가치 추정 결과표

* 모든 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사업명	연구 논문 작성 투입 비용 기준 자산가치	상금/장학금 기준 자산가치	전문가 평가 기준 자산가치 (1차 조사)	전문가 평가 기준 자산가치 (2차 조사)
연구공모전·콜로키움	1.56억 원	3.71억 원	7.07억 원 (2.59억~60억 원)	10억 원 (4.55억~77.05억 원)
펠로우십		1.05억 원	3.42억 원 (1.27억~30억 원)	4.93억 원 (2억~32억 원)

3) 자산가치 측정 시도와 한계

연구공모전·폴로키움과 펠로우십의 자산가치 측정은 연구지원 사업의 산출물인 연구자, 연구물,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검증하는 실험이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연구지원 사업의 자산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다만 자산가치 추정이 국내 재단의 사회적 가치 측정 영역에서 처음 시도되었기에 다양한 반론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연구물과 연구자를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논쟁에서부터 그 가치를 취득원가나 델파이 방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우리 역시 그에 대한 답은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첫 시도가 갖는 의미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단지 선례가 없다고 해서, 혹은 추정 방법이 널리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러한 시도 자체를 부정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기부금 대비 얼마만큼 임팩트를 내는지’ 그 투자 효율을 제대로 기부자들에게 보여줄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 방법이 표준화되거나 신뢰성 있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매년 그 데이터를 쌓고 자산가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관리한다면 자산가치 추정은 관리 방법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